



“야구는 잘하고 볼 일”... 한국 대표팀 전세기 타고 애리조나 입성

日 꺾고 아시아 예선 1위 대우 확 달라져...1차 상금 30만달러도 챙겨

‘상금 30만 달러에 전세기 특혜까지’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 1라운드 순위결정전에서 속적 일본을 1-0으로 물리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한 태극 전사들은 9일 미국 피닉스까지 이동하는 전세기에서 JAL 승무원들로부터 국적이 못지않은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

야구는 역시 잘하고 볼 일이었다. WBC 조직위원회는 한국과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거와 비슷한 대우를 했다. 전원 비즈니스 좌석에 4개국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식사까지, 선수들에게 ‘야구를 잘해서 태

극마크를 오래 달아야겠다’는 동기를 확실히 부여해 준 셈이다.

9일 밤 10시30분 도쿄도를 떠난 대표팀 버스는 11시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 20여분 만에 출국 수속을 밟은 선수단은 11시30분 정각에 비행기에 탑승했다.

선수과 코치진, 선수단 스태프를 합쳐 50명이 넘는 선수단이 공항의 협조로 일사천리로 출국 심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대표팀이 탔던 전세기는 보잉 747 D-400 기종으로 기본 좌석이 400석 초반에서 500석 중반까지 가능한 비행기이나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늘리느라 총

좌석은 303석에 불과했다. WBC에서 오로지 선수단을 위한 비행기로 좌석을 고치느라 일반 비행기와는 구조 자체가 달랐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모두 1등석에, 28명의 선수와 스태프는 모두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틀었다. 비즈니스석도 개별적으로 일자형 취침이 가능한 최신형이었다.

3년전 초대 대회 때도 전세기가 뺏지만 모두가 비즈니스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우가 한 단계 향상됐다.

한식과 일식, 중식, 양식으로 구성된 푸짐한 식단은 선수들을 만족스럽게 했다. JAL은 본선

에 올라갈 아시아 4개국 선수들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중국)와 번체자(대만)용 메뉴를 따로 만들어 최대한 배려했다.

호주머니도 더 두둑해졌다. 지난달 14일 소집된 대표팀은 하루 일당으로 5만원(감독은 10만원, 코치는 7만원)씩 받는다. 일본에서는 유명구 KBO 총재로부터 거액의 격려금도 받았고, 라운드별 순위를 가리지 않았던 지난 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각 라운드 1위에게 3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면서 1차 상금으로 30만 달러도 손에 쥐었다.

상금이 780만 달러에서 1천4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승승장구해 우승까지 하면 최대 34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WBC 아시아 예선 1, 2위 결정전에서 일본에 꺾인 1-0 승리를 거둔 야구 대표팀이 9일(현지시간) 오후 WBC 본선경기에 앞서 훈련을 하게 될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하위타선이여 살아나라

타선 불균형·미숙한 주루 플레이 보완해야



봉중근

한국이 혈투 끝에 9일 일본을 물리치고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아시아예선전 A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로써 16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팻파르에서 B조 2위팀과 경기를 시작으로 본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국은 6일 대만전부터 9일 일본과 ‘리턴매치’까지 예선 4경기에서 힘있는 중심타선과 효율적 계투를 선보였지만 투타에서 단점도 적지 않게 노출했다.

특히 타격과 마운드에서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커 김인식 감독의 용병에 한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심타선 OK-하위타선 ‘짐작’=이번 대회에서 3번 타자 김현수와 4번 타자 김태균은 맹타를 휘둘렀다. 지난 시즌 국내 프로야구 타격왕인 김현수는 4경기에서 13타수 5안타로 타율 0.384를 기록했고 지난해 홈런왕인 김태균은 12타수 5안타, 타율 0.416에 타점이 무려 6개나 됐다. 여기에는 7일 일본전 2점 홈런과 9일 일본전 결승 타점도 포함돼 있다.

5번 타자로 나선 이대호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타수 3안타를 치며 나름대로 부진했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부진했다. 메이저리거로 이승엽, 김동주 등이 빠진 타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신수(클리블랜드)는 예선전 직전에 발생한 팔꿈치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7타수 1안타에 그쳤다. 포수 박경환 역시 1안타의 빈타에 허덕였다.

이승엽과 이택근 김민호 등은 비록 대타로 출장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공격의 물꼬를 터줘야 하는 톱타자이 종욱의 ‘부진’도 기동력을 추구하는 한국으로서의 고민이다.

이종욱은 4경기에서 12타수 3안타로 0.250에 그쳤다. 살아나가는 힛수가 적다 보니 기동력을 발휘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분위기다. 볼넷을 4개나 얻었지만 도루는 1개에 불과했다. 이종욱의 부진이 본선에서도 계속된다면 1번 타자로 소속 팀에서 꾸준히 기용된 이승엽이나 이번 예선전에서 12타수 4안타(타율 0.333), 홈런 1개 2타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인 정근우가 선두타자를 맡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수력 ‘편차’=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예선전 내내 제1회

WBC 대회에 비해 대표팀의 투수력이 약화됐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물론 9일 일본전에서 메이저리거급 투구를 선보인 봉중근이나 임창용 등과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WBC까지 국제용 투수임을 입증한 윤석민 등 좋은 투수들도 있지만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감독은 예선전이 열리는 일본에 도착하던 날부터 “타격은 그대로 괜찮지만 투수 중 컨디션이 좋지 않은 2명이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제1회 WBC 대회에서는 메이저리거 박찬호와 서재용 등이 포함됐고 손민환이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 등 빛을 발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박찬호와 서재용 등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빠진 데다 투수 중 최고참인 손민환이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면서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한국 프로야구 세이브왕인 오승환 역시 예선 4경기에서 공을 만져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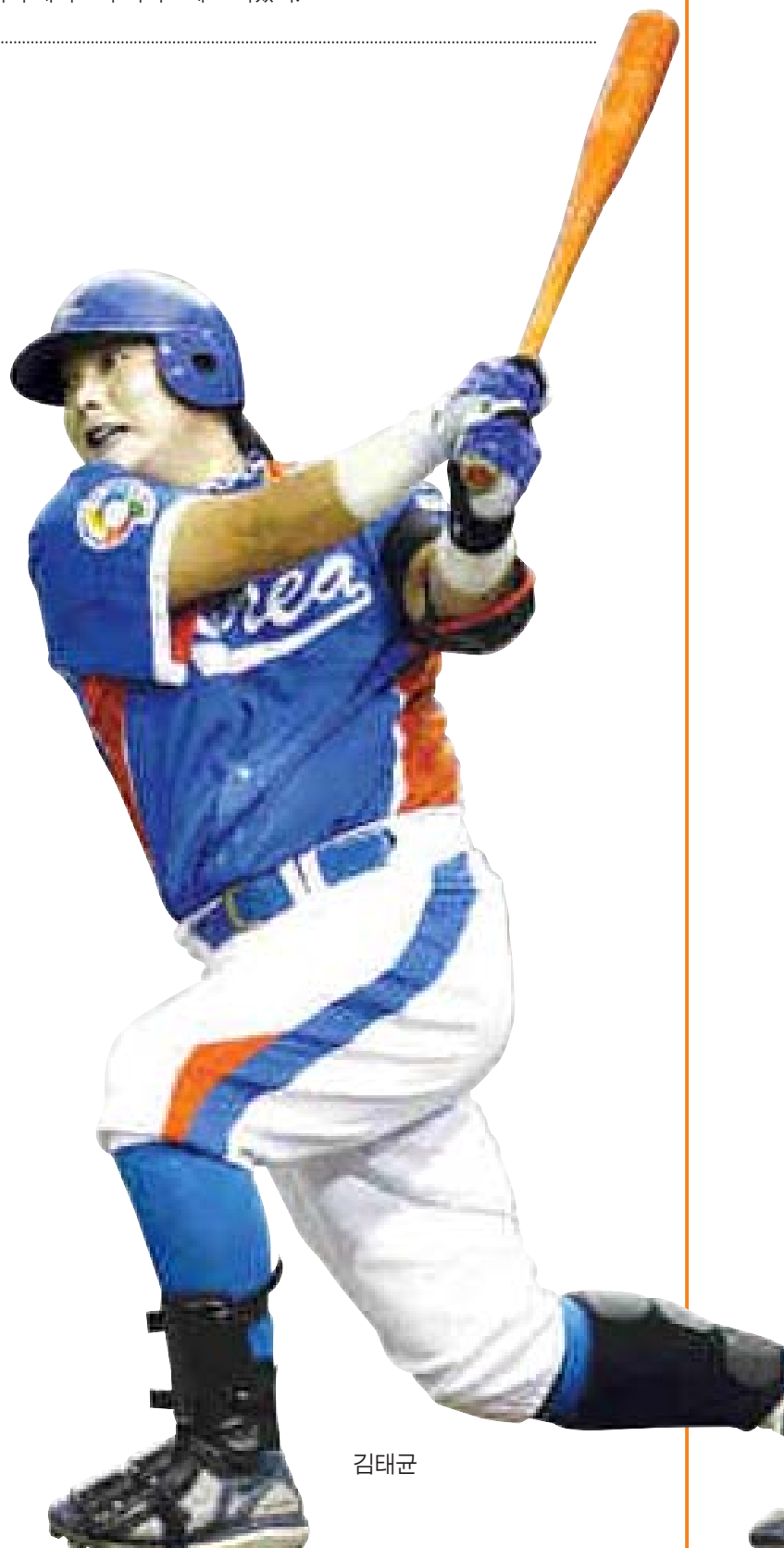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국 내에서는 좋은 구질과 뛰어난 연투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재우나 예선전 직전 황두성과 교체된 임태훈은 국제대회 경험이 모자라 아직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광현은 국내 최고 좌완투수로 꼽히지만 베이징올림픽의 호투로 이미 각국의 제1 경계대상이 되며 철저히 분석된 만큼 남은 경기에서 이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 지도 속재다. /연합뉴스

박찬호 “한국야구 또 일 났다”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한국이 일본을 꺾고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아시아예선 1위로 본선에 진출한 데 대해 “야구가 또 일 났다”며 축하했다.

박찬호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쁘서) 미치겠네요”라며 전날 대표팀의 일본전 완봉승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박찬호는 “봉중근과 김태균이 내게 아주 고마운 감동의 선물을 줬다”며 “경기가 끝나고 기뻐 춤을 추는 세계 동료들도 축하를 해줬다”며 대표팀의 승리를 함께 기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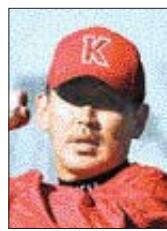
김태균

‘까치’ 김정수·권윤민 KIA 스카우트로 변신

‘까치’ 김정수(사진 위)와 시카고 컵스 출신의 포수 권윤민이 스카우트로 변신했다. KIA 타이거즈는 9일 김정수 전 KIA 투수코치와 권윤민 전 KIA 포수를 스카우트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김정수는 해태 입단 첫 해인 1986년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나홀로 3승’을 챙기며 MVP를 거머쥔 등 한국시리즈 23경기에 출장해 역대 최다승(7승), 최다연승(6승)을 기록, ‘가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권윤민은 1999년 미국 메이저리거 시카고 컵스에 입단해 화제가 됐으나 2004년 어깨 부상으로 방출된 뒤 2007년 KIA에 입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발목 근력 축구선수와 대등

美전후 이후 향상...어깨는 프로야구 외야수 수준

수영 스타 박태환(20·단국대)이 다음 달 다시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박태환은 이미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USC)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길러낸 데이브 살로(미국)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6주 동안 전지훈련을 가졌다.

박태환이 같은 곳, 같은 지도자 밑에서 다시 단급질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우선 훈련 성과 때문이다. 박태환 전담팀을 운영하는 SK텔레콤스포츠단은 “박태환이 지난달 26일 등속성 근력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어깨, 발목 근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목 근력이 늘어 리프트 동작에서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사를 진행한 경원대 스포츠건강관리센터 김우원 교수에 따르면 미국 전훈련·후를 비교한 결과 박태환의 발목 근력

수치는 5~7% 향상돼 대학 축구선수와 대등한 수준이며, 어깨는 프로야구 외야수보다도 10~15% 높은 수준이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400m 2회 연속 우승과 1,500m 기록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품은 박태환으로서는 기분 좋은 검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훈련의 집중력을 높이면서 50m 정구코스에서 동작을 세밀하게 가다듬으려는 것도 다시 미국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현지 수영장은 동계 25m 쇼트코스 운영하다 4월부터 다시 50m 정구코스로 되돌린다. 1차 훈련 때 25m짜리 코스에서 턴 동작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박태환은 귀국 후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재개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덜어놓았을 정도로 코스 변화는 훈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합뉴스



어깨 프로야구 외야수보다 10~15% 높은 수준

발목 대학축구선수 수준

이승엽 투런포 등 3안타 불방망이

日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주전 경쟁을 벌이는 이승엽(33)이 부진을 떨쳐버리는 시원한 투런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이승엽은 10일 야마구치현 슈난 구장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시범경기에서 3회 역전 2점 홈런을 뽑아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선발 1투수 겸 5번 타자로 출전한 이승엽은 이날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승엽의 이하라 하루키 수석코치가 “이승엽은 에드가르도 알폰소와 경쟁 관계”라며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친 것이다.

이승엽은 2회 말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뽑아낸 뒤 3-3 동점인 3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투수 시노다의 공을 받아쳐 담장을 넘기는 역전 2점 홈런을 때렸다. 이승엽은 5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서 2루타

를 때리고 교체됐다. 이승엽은 최근 4경기에서는 9타수 2안타로 타율 0.222에 머물렀지만 이날 완벽한 타격을 보이면서 시범경기 타율을 0.417(12타수5안타)로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는 요미우리가 히로시마에 6-9로 졌다. /연합뉴스

백차승 3이닝 1실점 승리투수

미국 메이저리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3선발 투수 자리를 노리는 백차승(29)이 10일(한국시간) 시범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백차승은 이날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벌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범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 3이닝 동안 1실점만 내주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였다.

백차승은 2회 볼넷과 2루타 하나로 1점을 내줬지만 3이닝 동안 11명의 타자를 땅볼 2개와 뜬볼 5개를 잡아내고 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로써 백차승의 시범경기 방어율은 6.00으로 내려갔다. /연합뉴스